

## ‘보전지역 관리 조례’ 본회의 상정 불발

제주도의회, 어제 본회의 직전 전체 의원 간담회  
“표결” vs “유보” 찬반 팽팽... ‘상정 보류’ 결정  
김태석 의장 “유익한 조례” 재상정 가능성 예고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등의 의결을 받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상임위에서는 드물게 표결 끝에 ‘4:3’으로 통과됐지만 김태석 의장은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까지 진행한 끝에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김태석 의장은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비공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 끝에 상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전날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표결 끝에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전체 간담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의견과 속고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원들은 결국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태석 의장은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안건이 첨예하게 대치를 이뤄 ‘4:3’으로 통과된

사례는 제3선(9~11대 의회)을 하면서 한번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상임위원장들과 합의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의 말처럼 상임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합의하지 못해 표결에 부치고, 위원장까지 투표에 참여해 ‘4:3’이라는 표 차이로 접목하게 안건을 처리한 것은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11대 의회의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과 10대 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등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 상정 보류한 일은 드물게나마 있지만,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한 합의 형식을 빌어 상정 보류 결정된 것도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상정하지는 의견과 유보하지는 의견도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걸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면서도 “도민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2공항 반대 프레임에



제주도의회가 22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 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어 조례안의 철회 또는 찬성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만 갇히지 않는다면 성산지역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조례다.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내부 토론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흥명

환 의원은 “상정 보류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간담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도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혀 향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공청회

오늘 도체육회관 세미나실

제주자치도는 23일 오후 2시 제주도 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고 제주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이범현 박사가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을 설명한 후, 진행상황 공유와 질의시간이 마련된다. 공청회에는 제주도

청 TF팀 관련 부서장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진인 류경돈 포스코건설 부장과 용역을 의뢰한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일 기본계획 반영 과제안을 공개했다. 의견수렴은 6월 18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공항확충지원단(064-710-4851~4853), 주민소통센터(064-710-4860-4863)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우편 접수(제주시 문연로 6 공항확충지원단)도 가능하다.

앞으로 2차 공청회는 6월 초쯤 성산체육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국비 1756억 확보 ‘총력전’

상하수도본부, 내년 국비 관련부서 신청·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0년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분야 228억원, 하수도 분야 1528억원 등 총 1756억원의 내년 국비를 관련 부처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 7개 사업에 총 228억원을 신청했다.

특히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의 유수율 제고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국비 150억원 지원과 정부사업에 제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상수도 유수율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45.9%로, 전국 평균 85.2%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934억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수도 분야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7개 사업(신규사업 11·계속사업 26)에 총 1528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현재 인구 증가 및 개발사업 영향 등에 따른 처리용량 한계로 하수 유

출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국가 재정 지원 반영을 통한 증설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주요 하수처리장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적정 수준인 80%를 초과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관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청정해역 보전과 지하수오염 예방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정부안 확정 이후 남은 만큼 중앙 절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 스마트아일랜드 기반

### 신산업 투자 유치방안 제주서 논의

제주포럼 기간 투자유치 세션  
스마트 아일랜드 비전도 소개

스마트아일랜드 기반의 신산업 투자 유치 방안이 제주에서 본격 논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둘째 날인 오는 30일,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투자 유치 세션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산업투자유치:스마트아일랜드’라는 주제로 열리는 투자 유치 세션에서는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대

응하고, 친환경 중심의 투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가 적극 추진하는 스마트 아일랜드의 비전과 가능성이 소개된다. 또한 한국·싱가포르·스페인인 스마트 시티 추진 과정과 더불어 투자유치, 비즈니스 연계 등의 경험도 공유된다.

특히 스마트 관광, 교통, 행정, 신재생에너지 등 제주형 스마트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투자 유치 분야의 가능성을 엿보고,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션은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김인환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LG CNS 유인상 위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장과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기업경쟁력제고부 차비에르 빌랄타(Xiavier Vilalta) 스마트전략실장, 서울대 이영성 교수, 카이스트 윤용진 부교수 등이 나설 계획이다. 고대목기자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19**  
FOR PEACE & PROSPERITY

##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2019년 5월 29일(수) - 31일(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록기간 2019년 4월 15일(월) - 5월 17일(금) 등록페이지 http://jejuforum.registrations.kr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말콤 턴블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그레임 앨리스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장관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장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JDC 평화콘서트 5월 31일(금) 19:30-21:00

자이언터, 캔탈포디보,마미타, 소리풍경 어린이 합창단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경제재단

주최 동아시아재단 동양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